여름방학 '대학생 멘토링' 참여한 '남도학숙' 학생들

"고향 후배들 직접 챙기니 멘터 보람 두배로 느껴요"

허수현(왼쪽)양이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여고 어학실에서 방학기간에도 학교에 나와 공부 중인 심화반 학생들에게 영어공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여름방학인 요즘 서울교대 1학년인 허수현(20)양은 광주 집에서 지내며 광주여고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방학 기간 중 저소득층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마련한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 공부 지도 진로 상담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광주·전남 인재들의 요람인 '남도학숙'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최민영(20·성균관대 1년)·진보경(20·숙명여대 1년)·김혜선(20·이화여대 1년)양도 허 양과 마찬가지로 광주여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남도학숙 학생들의 멘토링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모두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허 양 등은 지난달 23~27일까지 5일 동안 매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과외하듯' 학생들을 가르쳤다. 수학 18명, 영어 20명 등 저소득층 학생 38명이 4개 반으로 나뉘어 공부를 배웠다. 월요일과 금요일에는 '수능 고득점자들이 친절하게 수업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심화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1시간씩 추가 수업을 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너무 더운 탓에 쉬고 다음주부터 다시 교육을 한다.

"애들과 맺은 인연 이어 갈래요"

멘토링 기간은 총 24시간으로 교육청에서 1인당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멘토링 기간을 24시간으로 제한,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쉽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멘토링에 참여 중인 일부 대학생들은 일부러 시간을 내 자신이 맡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물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도 해주고 있다.

허수현양은 "어려운 가정형편에 학원에 다닐 수 없었던 애들이 내 도움을 받아 기초과정을 하나씩 깨우쳐 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며 "아이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는 올 여름방학 중 348명의 대학생이 멘토로 나서 초등학교 15개교 703명, 중학교 16개교 408명, 고등학교 11개교 281명 등 모두 42개교 학생 1천 392명의 공부를 돌봐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멘토링(mentoring)='경험있는 조언자의 도움'이란 뜻으로 교육학에선 개인과 소그룹에 대한 '맞춤식 교육'으로 불린다. 조언자는 멘터(mentor), 조언을 받는 학생은 멘티(mentee)라고 부른다.

삼성전자 기흥공장 정전

반도체 생산 중단… 피해 클 듯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공장 생산라인이 3일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흥공장 변전소 배전반 이상으로 정전이 발생, K2 지역 생산라인에 전력 공급이 중단돼 생산이 중단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전으로 인해 생산 라인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며 "정전에 대비한 응급 전원 공급장치가 즉각 가동돼 가스공급 장치 등 안전 시설과 핵심 시설은 정상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K2지역은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6, 7, 8, 9, 14 라인과 시스템 LSI를 생산하는 S라인 등 총 6개 라인으로 구성돼 있다.

기흥 공장에서 관측된 연기에 대해 삼성전자는 "문제의 배전판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생산 라인에 화재가 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력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통 라인 가동이 중단되면 복구하는데 수 일부터 많게는 수 주일까지 걸린다는 점에서 생산 차질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은 초정밀 공정이 수행돼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정 온도와 습도 등이 최적화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수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력이 복구됐다 하더라도 바로 가동을 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력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증권업계는 이번 정전 사태로 인해 최악의 경우 삼성전자의 3.4분기 낸드플래시 생산량이 15% 가량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3일 재단 회의실에서 102차 이사회를 갖고 신임 이사 선임 등 안건을 처리한 뒤 재단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20명선 새 이사진 구성

당연직 이사수 축소… 종신 이사제 폐지

신정아씨 파문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회가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등 재단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

특히 이사회는 이사들의 무기한 연임을 보장하는 '종신 이사제' 정관을 폐지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당연직 이사들의 수를 축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3일 재단 회의실에서 102차 이사회를 열고 당연직 이사 8명을 제외한 선출직 이사 10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우선 기존 27명에서 9명을 줄인 18명(당연직 이사 8명 포함)으로 이사진을 구성한 뒤 2명 가량을 추가, 20명선으로 이사 인선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신임 이사는 김광명 숭실대 교수, 김영호 중앙대 교수, 정승주 전남대 명예교수, 최영훈 조선대 교수 등 4명이며,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이용우 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김남훈 조선대 교수, 이봉규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고재일 대창운수 대표이사, 안희옥 YMCA 사무총장 등 기존 이사 6명은 재선임됐다.

이사회는 또 '종신 이사제' 정관을 삭제하는 대신 기존의 정관(2년 1회 연임)을 부활하고, 8명인 당연직 이사들의 숫자를 축소하는 안건을 운영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의결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장기 발전 과제로 ▲비엔날레 예술 총감독 선임 ▲재단 사무처 연구·기획 기능 보강 ▲지역 및 청년 작가 육성 방안 등을 선정, 개선·보강키로 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재단 이사진이 새로 구성됐으나, 경제계나 사회단체 등 미술과 거리가 먼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돼 이사회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당연직 이사들이 재구성한 비엔날레 이사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병역 비리 의혹 받는 '본태성 고혈압' 판정자

광주·전남 모두 120여명 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 병역 비리' 질환으로 알려진 '본태성 고혈압'(이상 원인에 의한 순간적인 혈압 상승)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사람이 12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광주·전남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인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명이며, 공익근무 판정은 12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 2005년 4월26일 '본태성 고혈압'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고 이듬해 9월부터 광주지역 한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김모(26)씨가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병역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체검사 직전 현역 입영대상자들에게 돈을 받고 혈압을 올리는 방법을 알려준 오모(26·구속)씨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 150만원을 건네고 혈압을 올리는 방법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지방 병무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김씨의 처분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며, 2004년 이후 '본태성 고혈압' 판정을 받은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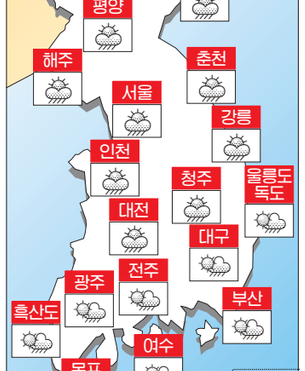
이에 앞서 인천지방경찰청은 '본태성 고혈압'을 이용해 병역 특혜를 받은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단비 내리는 오후

8월 4일 (음 6월 22일) ◇전국날씨

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며 낮부터 비가 오겠다.

광 주	차차흐려져 비	26~30℃
목 포	차차흐려져 비	24~29℃
여 수	차차흐려져 비	25~29℃
완 도	차차흐려져 비	25~30℃
구 례	차차흐려져 비	26~31℃
해 남	차차흐려져 비	25~30℃
장 흥	차차흐려져 비	24~31℃
고 흥	차차흐려져 비	25~30℃
순 천	차차흐려져 비	25~31℃
영 광	차차흐려져 비	25~30℃
진 도	차차흐려져 비	26~30℃
전 주	차차흐려져 비	26~30℃
남 원	차차흐려져 비	25~31℃
흑산도	차차흐려져 비	23~27℃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남서풍 파고 1.0~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5m

목 포 밀물 〈 05:38 18:06 썰물 〈 10:55 23:14
여 수 밀물 〈 00:15 12:41 썰물 〈 06:23 18:38

▲해뜸 05:43 ▲해짐 19:34 ▲달뜸 22:29 ▲달짐 11:1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일)	6(월)	7(화)	8(수)	9(목)	10(금)
날 씨						
최저/최고	25/32	24/32	24/33	25/32	25/33	26/34

최고 70㎜ 비

주말 집중호우 조심

주말인 4일 광주·전남지역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4일 광주·전남지역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30~70㎜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또 "대기가 불안정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mm 내외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집중호우'에 따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일요일인 5일에는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비가 온 뒤 낮부터 차차 갤 것으로 보인다.

한편 3일 광주는 3일째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으며, 전남도 ▲광양 37.1도 ▲구례 36.8도 등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훌쩍 뛰어넘는 '땡볕 더위'를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국대, '학위 위조' 신정아씨 파면

동국대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짜 학위' 파문을 빚은 신정아 조교수를 파면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국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신씨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징계위는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신 교수는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연일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돼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케 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동국대는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이사장이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와 사유를 통보하고 학교당국에 인사명령을 내려 이날 신씨에 대한 파면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태안 앞바다서 또 고려청자 발견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또다시 고려청자〈사진〉가 발견됐다.

3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근흥면 마도 인근 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심모(52·어업)씨가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대접과 접시 등 4점을 인양, 군청에 신고했다.

태안군 인근 해역에서 고려청자가 발견된 것은 지난 5월, 7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에 발견된 청자대접은 12세기 무렵 귀족들을 수요층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접시는 투박한 생김새로 미뤄 서민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은 부여박물관에 매장문화재 보관 및 예비평가를 의뢰하는 한편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 이 해역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요청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8일에는 근흥면 대섬 인근 바다에서 청자 대접 1점이 인양돼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고려청자 수 천점을 실은 고선박 한척을 확인했고 지난달 20일에는 마도 해역에서 고려청자가 인양됐다. /연합뉴스

가수 보아 협박 돈 뜯어낸 대학생 징역 6개월 실형

인기가수 보아의 미니홈피에서 해킹한 사진과 이메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승철 판사는 가수 보아의 홈페이지에서 동료 남자 연예인 A씨와 찍은 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빼내 유포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대학생 서모(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 메일을 보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4월 가수 보아의 홈페이지를 해킹해 사생활 자료를 빼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보아의 매니저를 협박해 3천500만원을 뜯어냈다. /연합뉴스

도박빚 받아내려 교통사고 강요

쌍나팔

○…자신들에게 도박빚을 진 30대 이혼남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강요한 뒤 피해자 행세를 하며 이 남자의 전 부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챙긴 일당 2명이 경찰에 덜미.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3일 공갈 등의 혐의로 붙잡힌 김모(30)·진모(30)씨는 자신들과 도박을 하다 4천100만원을 빚진 박모(37)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자신들의 자동차를 들이받도록 한 뒤 박씨의 전 부인 이모(37)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챙겼다는 것.

○…김씨 등은 또 박씨에게 이씨의 인감도장을 훔치게 한 뒤 이씨 명의의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강제 경매신청해 남은 도박빚도 마저 받아챙기려 했는데.

○…이씨는 전 남편의 사정이 딱해 400만원을 대신 갚아줬는데도 김씨 등이 아파트까지 경매 신청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 /최권일기자 cki@